

각동의 유래

구월동

구한말 인천부 주안면 구월리 였다가 1913년 부천군 다주면 구월리가 되었으며 1936년 인천부로 편입되면서 정지정이 되었으나 1946년 다시 구월동이 되었다.

이고장은 원래 '큰구월' '작은 구월' '전자울' '큰성말'과 같은 자연 부락이 있으며 80년대에 구월1,2동으로 발전하였고 택지 개발 및 대단위 아파트 신설로 인구가 급증하여 1991년 구월3동, 1993년 구월 4동 신설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간석동

간석동이란 양촌과 돌말이 합쳐져서 생긴 이름이며 구한말 인천부 주안면 2리였으나 1913년 부천군 다주면 간석리로 되었다. 이 간석리는 석촌, 간촌, 석암으로 이루어졌다.

해방후 1946년 동명개정으로 간석동이 되었다.

자연부락으로 '돌말' '큰말' '녀말' '양촌' '벌터' '쇠마니' '풀무꼴'등이 있다. 1970년대 이후 새로운 시가지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인천의 중심지가 되어 가고 있다. 현재는 시세확장에 따라 4개 동으로 늘어났다.

만수동

1914년 부천군 남동면 만수리, 1940년 인천부에 편입 만수정이 되었다. 1946년 만수동으로 고쳐졌으며 이 지역은 서울에서 수포구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옛날 중국의 무역선이 이곳 수산포 포구에 들어와 물건을 서울로 반입하는 길목 주막거리 '김촌' '박촌' '하촌' 마을이 있던곳이다. 이 지역은 '장



A horizontal timeline from 1914 to 1946. A bracket below the timeline indicates a 60% increase over this period.

가

가 (西昌)

1906 2 3 , , 1914 2 3 가 1940 . 1977

1903 3
1914 가
1940 4 1
1946 1



A horizontal timeline of the 20th century. The timeline is a horizontal line with arrows at both ends. Major years are marked with dots and labeled: 1914, 1940, 1946, and 1991. There are also smaller, unlabeled tick marks between these major years.

